

 국토교통부		<h1 style="margin: 0;">보 도 자 료</h1>		
		배포일시	2019. 2. 27.(수) 총 4매(본문3)	
<b>담당 부서</b>	국토교통부	<b>주거복지 정책과</b>	• 과장 김석기, 사무관 우종하, 주무관 민현식 • ☎ (044) 201-3360, 3361	
	한국토지주택공사	<b>주거복지 기획처</b>	• 부장 김명관, 차장 박성창 • ☎ (055) 922-3390, 3318	
<b>보 도 일 시</b>		2019년 2월 28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8.(목) 06:00 이후 보도 가능		

## 고령자주거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한다 전국 15개 영구임대 단지에 주거복지사 배치·돌봄서비스·소통 활성화 지원

<영구임대주택 주거복지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정책효과 사례 >

- \* (사례1) 기초생활 수급자로 영구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 이OO(78세, 여성) 할머니는 파킨슨병, 관절염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다. 다른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터라 병원을 한 번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.
  - ☞ 영구임대주택에 배치된 주거복지사 등 전문인력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건강·생활실태를 점검하고, 필요시 의료기관 방문 차량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
  - 복지관, 관리사무소,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식사·생필품 지원, 고독사·우울증 정신건강 관리서비스 제공
- \* (사례2) 보육교사 경력이 있지만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로 살아온 김OO(52세)은 자녀가 대학에 입학한 후 자신의 경력을 살려 주거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. 최근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채용에 응시하였고 얼마 후면 영구임대단지 내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주거복지사로 일하게 된다.
  - ☞ 향후 전국 영구임대주택 단지(LH·지방공사 173개 단지)로 대상을 확대할 경우 주거복지사 등 주거복지 전문인력 일자리(약 500개) 창출 기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전국 15개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주거복지 전문인력인 주거복지사를 2월 28일부터 배치하여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와 커뮤니티 활성화를 지원한다.

※ (참고)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인 현황 예시

계	기초생활수급자	장애인	북한이탈주민	한부모가정	기 타
984호(100%)	833호(84.7%)	40호(4.1%)	46호(4.7%)	18호(1.8%)	47호(4.7%)

- 그간 국토부는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저소득·취약계층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였으나, 물리적 공간인 주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되어, 입주민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지 차원의 문제를 해소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평가하고,
  - 지자체, 복지관, 보건소, LH, 주택관리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, 안전, 일자리,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각지대에 처한 취약계층을 지원하고,
  - 영구임대주택 단지가 지역 공동체 속에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단지 특화형 사업을 추진할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.
- 주거복지 전문인력은 영구임대주택 관리사무소 내 별도 공간에 상주하면서 입주자 대상 실태조사와 심층상담을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 욕구를 파악한 후 주거서비스 운영계획을 수립하고,
  - 복지관, 보건소, 관리사무소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·연계를 통해 건강·고용·교육·신용 등 입주민이 겪을 수 있는 통합적 주거·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한다.

	기본업무	협력·연계업무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입주자 주거복지 실태조사, 분석, 상담</li> <li>• 돌봄서비스 등 입주자 문제해결 지원</li> <li>• 사각 지대에 처한 입주민 발굴·지원</li> <li>• 기 시행중인 주거 복지서비스, 커뮤니티 활동 등 정보 제공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연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부자원 발굴</li> <li>- 민관공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</li> </ul> </li> <li>• 관리사무소와 협력체계 구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임차인 대표회의 등과 정보공유</li> </ul> </li> </ul>

- 국토부는 시범사업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, 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전국 영구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등으로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- 한편,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2월 28일 오후에 서울 강서구가양동의 영구임대단지에서 개최된 ‘찾아가는 마이홈센터’ 개소식에 참석하여 주거복지사와 관리사무소 직원을 격려하고,
  - 단지 내 독거노인 세대를 방문하여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 상담 과정을 함께하고 불편사항을 직접 청취하였다.
  - 박 차관은, “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적인 생계지원을 넘어 한 차원 높은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포용국가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면서, 올해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단계적으로 전문인력 배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
  - “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우종하 사무관(☎ 044-201-336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참고****시범사업 대상 영구임대주택 단지(15개, 혼합단지 포함)**

※ 단지 규모 및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개 단지 선정

구분	지역	영구임대단지	세대수	비고
1	서울	서울중계3	1,325	
2		서울가양7	1,998	
3	인천	인천삼산1	1,764	
4	경기	시흥목감 LH7	402	영구혼합단지
5		부천옥길 LH1	558	
6		하남미사A13	1,152	
7		화성동탄2 A24	600	
8		성남위례35	550	
9		분당한솔7단지	1,668	
10		부산	부산덕천2	
11	충북	청주산남2-1	1,209	
12	대전	대전판암4	2,415	
13	전북	군산나운4	1,999	
14	광주	광주우산3	1,274	
15	대구	대구월성2	2,364	